

## 미국 물리치료 임상실습 일기 :: 7편

시간이 야속하게도 두 달간의 미국 임상 실습은 빨리 지나갔으며 벌써 한 주밖에 안 남은 7주 차를 보냈다. 여태껏 실습이 끝나갈 때쯤에는 빨리 실습이 끝나길 원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지만 새로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 실무보조를 하면서

여태 한국의 여러 병원에서 실습을 하는 동안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치료를 하는 기회는 많이 얻지 못하였다. 이번 미국 임상 실습 클리닉에서는 물리적 인자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운동을 가르쳐 보는 기회를 얻었다. 물론 환자 수가 적은 것이 아녀서 운동치료실에서 10~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동작을 가르쳐 주고 자세를 고쳐주는 식으로 치료를 진행했다. 내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어깨 수술을 한 주부 환자에게 Thera-band를 이용해 Shoulder stability exercise를 가르쳐 준 뒤 내원할 때마다 자세를 교정해드렸다. 또 Neck pain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는 Upper trapezius, Levator scapulae, Pectoralis minor 스트레칭 루틴과 함께 Deep neck flexor exercise 등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끔 알려드렸다. 이렇게 환자 운동 치료에 참여하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운동치료실의 테이블과 각종 도구들



Cervical traction device

미국 현지에서 치료사가 가지는 이점 중 하나는 자신이 사고 싶은 치료 도구를 어려움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좋은 치료 도구들을 구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만 판매하는 도구들 중 무게와 부피가 큰 도구들을 들여 오기란 쉽지 않다. 도구가 치료의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치료에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면 환자의 만족감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Therapeutic Wobble Chair**

#### **끝으로**

나의 경우 한국에서 병원 실습 말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실습의 목적을 잊고 수동적으로 실습에 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 미국 임상 실습은 환자와 접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 새로운 환경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재미를 얻을 수 있었다. 인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마지막 실습을 머나먼 미국에서 할 줄 꿈에도 몰랐지만 학과 교수님들과 학교 측의 도움 덕분에 값진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려운 시기에 안전하게 실습을 마쳐 나간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 글을 읽는 모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길 기도하며 글을 이만 줄인다!



**Washington D.C의 National Mall에서**